

지역 소식통

정읍시, 농업경영체 농작업

맞춤형 방문 컨설팅 실시

“정읍시가 농업 현장의 증대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110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총 1억원(국·시비 포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사고와 질병에 취약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관내 농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해 중대재해 예방이 시급한 농가를 우선순위로 선정해 농장 상황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농작업 안전관리자가 직접 농업 현장을 방문해 작업별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밀착형 전문 상담이다. 상담은 농가당 3회 이상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위험성 진단·평가, 개선 대책 처방, 이행 사항 점검 등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소음, 분진, 유해가스 측정기를 등을 활용해 농작업장 유해요인을 점검한다. 또한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필수 안전 물품 지원도 병행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규제역 발생

방지 총력 대응 추진

부안군은 규제역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규제역 발생 우려가 커져 선제적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축산농가 대상 집중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규제역은 소와 돼지 등 우제류에 치명적인 법정 1급 가축전염병 발생 경우 축산업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군은 규제역·AI·ASF 상황 발생에 대비한 긴급 대응 매뉴얼을 재검토하고 유사시 신속한 초동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태세를 향시 강화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미래 20년 성장 로드맵 시동

정읍형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추진계획 수립... 2045년까지 정읍형 발전모델 완성 추진

정읍시가 기후 위기와 인구 감소 등 지역이 직면한 과제에 대응하고 미래 세대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읍형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9일 시청 단풍회의실에서 유호연 부시장 주재로 관계 공무원과 용역 수행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법정 의무 계획인 이번 용역은 정읍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이행 체계를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수행 기관인 (주)호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 오는 10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한다.

주요 과업 내용은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전망 분석, 2045년까지의 20년 단위 기본전략 수립, 2030년까지의 5년 단위 단기 추진계획 수



립, 정읍형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이행 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시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단순한 선언적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성과와 연동되는 구체적인 지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의 활력, 사회적

포용성, 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읍형 모델’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은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변산반도서 전국 최고 요트 레이스 펼쳐진다

11~15일 ‘제38회 대통령기 전국 요트대회’ 개최... 전국 430여명 참가·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 겸해

부안군 변산반도의 푸른 바다를 가르는 은빛 물결의 향연, ‘제38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회 요트대회’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한요트협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요트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선수 195명과 경기 운영 인력 및 지도자 230여명 등 총 430여명이 참가해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요트 축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제20회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획득하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어, 태극마크를 향한 국내 최정



상급 선수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요트경기는 11개 종목으로 1인승 딩기(올림피스트, ILCA 4, ILCA 6, ILCA 7), 2인승 딩기(420, 470), 스키프(49er), 윈드서핑(테크노293, IQFoil,

RS:X), 카이트보딩(포물러카이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회 일정은 11일 경기 수역 개방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1일에 1~3경기, 총 12경기로 5일간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하며, 15일 시상식을 끝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전국에서 부안을 찾아주시는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준비해주시는 요트협회 측에 감사드리며, 모든 선수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후회 없는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반쯤으로 즐기는 여행... ‘지역사랑 휴가지원’ 본격 시행

숙박·식음·체험시설 사용금액 최대 50% 환급... 13일부터 접수

고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도내 유일 선정되며, 체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고창반쯤여행’을 본격추진한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국비를 포함한 총 1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4월13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고창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고창군 내 숙박·식음·체험시설 이용 시, 사용 금액 최대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환급 한도는 1인 최대 10만원, 단체

(2인 이상)는 최대 20만원, 가족은 최대 50만원, 청년은 최대 14만원까지 지원된다. 환급금은 지역 내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재사용이 가능하다.

관광객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 홍보를 추진하고, 친절·위생 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광 수용태세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외국인 인플루언서 팸투어 성료

15개국서 20명 참여·SNS 홍보 추진... 글로벌 관광 수요 대응 강화

정읍시가 ‘2026 정읍 벚꽃축제’ 기간에 맞춰 15개국 외국인 영향력자(인플루언서) 20명을 초청해 사전 답사 여행(팸투어)을 성황리에 마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관광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온라인 제작물(콘텐츠) 생산과 확산을 전제로 한 전략형 홍보 사업으로 추진됐다. 참여자들은 총 32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자신들의 세계적인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해 이달 한 달간 정읍의 다채로운 관광 자원을 순차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답사 일정은 만개한 벚꽃축제를 중심으로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1894 달하루’, 내장산국립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장금이파크, 쌍화차거리, 샘고을시장 등 정읍의 핵심 관광 명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체험형 동선으로 구성됐다.

특히 벚꽃축제 현장에서는 참여자들이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이색적인 현장 제작물을 직접 촬영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장금이파크’에서의 김밥 만들기 체험과 활기찬 전통시장 방문 등 지역 밀착형 체험을 영상에 담아내며 축제와 체험, 지역 상권이 매력적으로 결합한 정읍 관광의 진면목을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했다.

최근 개별 외국인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누리소통망(SNS) 중심의 여행 정보 소비가 대세로 자리 잡음에 따라, 정읍시는 체험형 관광과 맞춤형 홍보를 결합한 외국인 유치(인바운드) 관광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다자녀 가구 패밀리카 구입 지원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최대 500만원 혜택

고창군이 3자녀 이상 가구의 양육 환경 안정을 돕기 위해 ‘패밀리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와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차량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군은 4월 21일 오후 6시까지 각 읍·면 주민행복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 2026년에 구매계약과 출고가 완료되고, 4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다. 신청자는 차량 등록명의자여야 하며,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부모·다문화·조손가구도 동일기준이 적용된다.

지원 내용은 6~11인승 국산 패밀리카 구매비용의 10%,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차량은 2026년에 구매계약과 출고가 완료되고, 4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수성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200세대 모집

주거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13~24일 방문 접수

정읍시가 무주택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정읍수성1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200세대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공급 대상은 전용면적 36.54㎡(11평형) 총 200세대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3월 25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

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현장 접수해야 하며, 인터넷 접수는 불가능하다.

기타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